

빨라진 직구·예리한 변화구 KIA 임기영, 자신감 찾았다

2020 시즌 치열한 선발진 경쟁 희망 안겨



KIA타이거즈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26)이 자신감을 찾기 시작했다. 임기영은 지난 12월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

기에 선발등판해 6이닝을 8피안타 4탈삼진 무사구 3실점을 기록했다. 팀 타선이 터지지 않아 0-5로 패하면서 패전을 안았다. 그러나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

트에 성공하는 등 완연히 좋아지는 투구였다.

1회 집중타가 아쉬웠다. 1사후 5연속 안타를 맞고 3실점했다. 직구의 힘을 믿고 밀어부쳤으나 두산타자들의 노림수에 걸렸다. 이후는 체인지업의 각이 예리해지면서 두산 타선을 잠재웠다. 2~5회까지 단 1안타만 맞았다. 6회 1사후 2안타를 내주었지만 후속타자들을 잠재우고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1회를 제외한 나머지 5이닝은 에이스급 투구였다. 이날 투구수는 80개에 불과했다. 볼넷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적극적인 투구가 통했다. 직구의 최고 구속이 142km까지 나왔다. 체인지업, 슬라이더, 투심 등 변화구도 통하기 시작하면서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킬 수 있었다.

임기영은 지난 1일 롯데와의 광주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당시 수훈선수로 선정된 임기영은 "오늘만큼만 던졌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 정도로 2017년 우승 당시의 구위를 보여주었다. 직구가 빨라졌고 체인지업의 낙폭이 대단했다. 모처럼 선발투수로 제몫을 했던 경기였다.

11일 만의 등판에서 2연속 퀄리티스타트에 성공했다. 직구가 더 빨라졌다는 점도 고무적이었다. 2017년 이후 2년 만에 2연속 QS로 한층 자신감이 붙었다. 남은 시즌 1경기 정도 등판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020 시즌 치열한 선발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임기영의 가을이 풍성해지고 있다.

고진영, 8주 연속 세계랭킹 1위

고진영(24·하이트진로)이 8주 연속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고진영은 17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랭킹포인트 10.30점을 기록, 7월29일자 랭킹에서 1위

에 오른 뒤 8주 연속 세계정상 자리를 지켰다.

박성현(26·솔레이)은 2위, 렉시 톰슨(미국)은 3위를 지켰다. 이정은(23·대방건설)은 4위, 브룩

헨더슨(캐나다)은 5위다.

15일 일본에서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 메이저 대회 가운데 하나인 일본여자프로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하타오카 나사(일본)는 전주보다 2계단 오른 7위에 자리했다.

뉴스1

“류현진·커쇼, 미니 슬럼프에서 탈출…다저스에 희소식”

LA다저스, ESPN 파워랭킹 2위



류현진(32·LA 다저스)의 최근 호투가 다저스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은 16일(한국시간) 2019 메이저리그 이번주 파워랭킹을 발표하고 류현진의 소속팀 LA 다저스를 휴스턴 에스트로스에 이은 2위에 올렸다.

ESPN은 “다저스가 7년 연속 지구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주말 클레이튼 커쇼와 류현진이 뉴욕 메츠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

며 미니슬럼프에서 탈출했는데 이는 다저스에 희소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현진은 메츠전에서 7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그의 평균자책점을 MLB 최저 수준인 2.35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지난 15일 뉴욕 메츠와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2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볼넷은 없었다. 이날 다저스가 8회말 3점을 뺏

기며 결국 0-3으로 패배, 류현진은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그러나 8월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부터 9월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까지 4경기간 이어지던 부진을 끊어내는 데 성공했다.

류현진은 올해 27경기에 나서 12승 5패, 평균자책점 2.35를 기록했다.

ESPN은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27경기 중 무실점 경기는 9차례, 2실점 이하 경기는 21차례였다”고 짚었다.

또한 ESPN은 다저스를 랭킹 2위에 올린 것에 대해 “커쇼는 14일 메츠를 상대로 6⅓이닝 동안 4피안타 2실점했다”며 “루키 타자 가빈 리스는 메이저리그에서 2홈런을 터뜨리며 포스트시즌 로스터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SPN은 지난주 파워랭킹 2위 휴스턴을 1위에 올리고 “올해 35홈런 타율 0.294를 올린 조지 스프링어는 톱 리그 오프 타자 중 한 명”이라며 그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파워랭킹 3위는 뉴욕 양키스, 4위는 애틀랜타, 5위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차지했다.

축구관 ‘별들의 전쟁’ 나서는 손흥민-황희찬-이강인 삼총사

오늘부터 UCL 조별리그…황희찬·이강인 데뷔전 관심

‘손세이셔널’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과 황소·황희찬(23·잘츠부르크), ‘신상’ 이강인(18·발렌시아) 등 한국인 삼총사가 축구관 별들의 전쟁에 나선다.

지난 시즌 토트넘 구단 역사상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진출을 이끈 손흥민에게는 이미 익숙한 무대이고, 황희찬과 이강인은 첫 출전을 고대하고 있다.

일정이 가장 빠른 것은 황희찬이다. 황희찬의 잘츠부르크는 18일 오전 4시(이하 한국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레드불 아레나에서 헝크(벨기에)와 E조 1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지금까지 황희찬은 UEFA 유로파리그(UEL)과 UCL 예선은 경험해봤지만 UCL 본선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희찬의 UCL 데뷔는 유력해 보인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2 합

부르크 임대 후 다시 잘츠부르크로 돌아온 황희찬은 리그에서만 6경기 4골 6도움을 휘둘러치며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이강인의 발렌시아는 같은 시간 영국 런던 스토포드 브리지에서 첼시와 UCL H조 1차전을 치른다. 이강인은 그간 UEL 무대는 밟아 봤지만 UCL 무대는 처음이다.

이강인은 이 경기 소집 명단에 들었다. 포지션은 미드필더로, 이강인이 이 경기에 출전하면 정우영(20·프라이부르크)이 갖고 있던 한국인 UCL 최연소(만 19세 2개월) 데뷔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손흥민의 출전은 불투명하다. 토트넘은 하루 뒤인 19일 오전 1시 55분 그리스 피레아스의 게오르기오스 카리야스카키스 스타디움에서 올림피아코스와의 B조 1차전 원정 경기를 갖는다.

UEFA는 손흥민 대신 해리 케인, 루카스 모우라, 델레 알리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유는 손흥민의 체력 안배다. 손흥민은 9월 A매치에 나섰고, 가장 최근 멀티골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4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문제는 토트넘의 향후 일정이 다.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 이어 21일 레스터시티와의 EPL 6라운드, 26일 볼체스터와 컵 대회, 28일 사우샘프턴과 EPL 7라운드를 치르는 빽빽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명품하는 행복의군민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임대정원림

연둔숲정미

김삿갓동산

오지호 기념관

조광조유배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